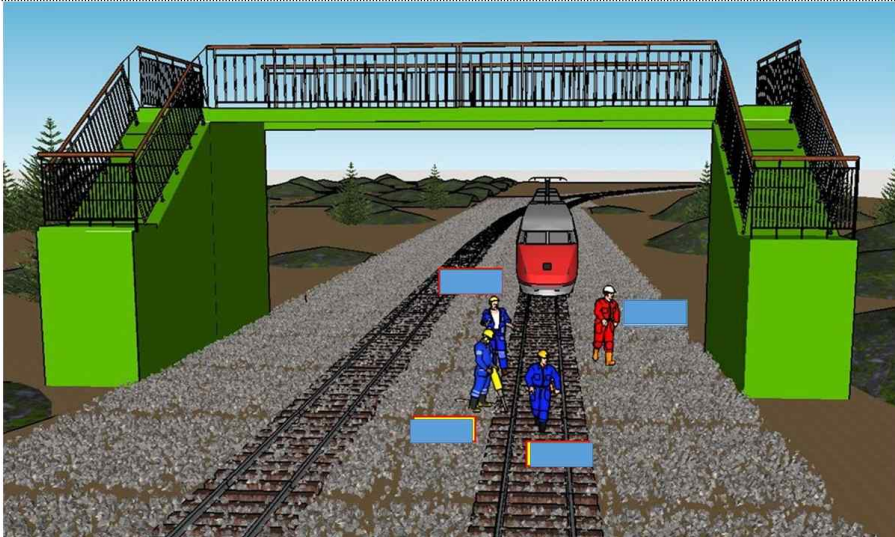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.10.22.(화) 10:16경 경남 밀양시 소재 철도역 구역내 선로 유지·보수 작업현장에서 시설관리반 소속 관리장 1명과 관리원 3명은 경부선 하선 지점에서 선로 유지·보수 작업 중 ITX새마을열차에 충돌하여 1명 사망 및 2명 부상당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작업계획서 미준수**
 -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·점검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 사고발생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곡선부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에 대해 열차 감시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현장에 열차감시원 1명만 사고발생장소 전방 약 820m지점에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
-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미지급**
 - 사고당시 열차감시원은 위험을 즉시 알리기 위한 신호장비로 무전기를 소지하고 사용하였으나, 무전기의 최대 소음 수준은 85~86dB(A)이며, 사고 당시의 작업 발생 소음은 100~105dB(A)로 작업 지점에서는 근로자가 무전소리를 듣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호장비로 무전기 사용



재해 예방 대책

- 작업계획서 준수 철저**
 -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·점검 작업 시에는 **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** 작업을 실시. 특히, 작업계획서 내용 중 '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'은 작업특성(작업시간, 장소, 작업 방법 등)별 위험요인에 적합한 예방대책 필요
-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**
 - 열차감시원에게는 **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**하여 작업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알리도록 하고, 위험을 알렸을 경우 작업근로자가 해당위험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체계마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